

## 스터디 가이드

### 들어가며

1. 이 책을 읽기 전, 시편 23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삶의 여러 사건이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 마르틴 루터는 왜 시편 23편을 “작은 성경(a little Bible)”이라고 말했을까요?
3. 시편 23편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한 말씀이라면, 이 책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물을 찾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4. 이 책과 시편 23편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 양과 목자: 1~3장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부 나그네와 동반자: 4~6장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3부 손님과 주인: 7~9장 (“나는 영원히 살리라”)

당신은 어느 부분에 가장 마음이 끌리며,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5. 이 책을 읽기에 앞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시편 23편의 이미지와 시적 아름다움, 그 속에 담긴 주제들을 통해,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26쪽).

### **이름 없는 나를 아시는 이가**

1. 이 장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 이신가’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당신은 어떤 위로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찢림이 있

나요?

2.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더 갈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3. 본문의 “여호와(the Lord)”는 출애굽기 떨기나무 앞의 모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 연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4. ‘목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5. 1절에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며,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나요?

6. 이 장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익숙한 구절이 당신에게 어떻게 새롭게 다가왔나요? 이제 주님을 찬양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어떤 고백이 담기게 될까요?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이끄시네**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과 2번 문답은 시편 23편 1-3절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2. 시편 23편 전체를 살펴볼 때, 1절은 어떻게 시편 23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나요?

3. ‘원하는 것(want)’을 ‘결핍(lack)’으로 바꾸어 생각할 때 1절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4. 1절은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5. 1-3절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 중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출애굽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장면은 시편 23편 1-3절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구절들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7.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신 삶의 여정에서 그분의 세심한 목자로서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8. 예수님의 생애와 오늘날 그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출애굽을 닮은 삶(exodus-shaped life)’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의 말로 설명해보세요.

### **의의 길에서 그분의 발소리가 들려오네**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2. ‘안식일’의 의미는 시편 23편 1-3절의 바탕에 어떻게 깔려 있나요?

3. “내 영혼이 누리는 안식은 언제나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

끼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이 진리가 당신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잠시 멈춰 서는 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4. 참된 자유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때 발견됩니다. 이것이 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나요?

5. ‘은혜가 먼저고, 율법은 그다음’이라는 출애굽의 정형화된 패턴을 다시 한번 주목해봅시다. 이 순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나요? 또한, “행복은 거룩함 속에서 발견된다”(99쪽)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6. 성경이 제시하는 ‘목자의 의의 길’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당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진리의 약속을 신뢰하며 깊은 안식을 누리십시오.

## 두려움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1. 시편 23편 4절 상반절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말씀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주 읊조리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어떤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나요?

2. 이 장에 따르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보세요.

3.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이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를 신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격려와 힘을 얻으시나요?

4.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골짜기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되나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마주할 때, “크신 하나님 신학(Big God Theology)”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수적인지 생각해보십시오.

6.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골짜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끝내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1. 이 책을 읽기 전,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여 지나간다(walk through)’는 사실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면서도, 우리 삶에 실재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당신에게 어떤 면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나요?

4.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당신의 마음을 향해 “나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스스로를 일깨워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5.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약속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는 이 짧고 명확한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주나요?

6.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인도하시네**

1. 그동안 문학 작품이나 그림을 통해 접했던 시편 23편의 이미지는 목자라는 직업을 그저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으로만 그리지는 않았나요? 이 장을 읽으면서 목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제는 당신에게 어떻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다윗이 고백 속에 이 도구들을 담아낸 이유를 함께 나누어봅시다.

3. 예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바른길로 인도하기보다는 타인을 징계하는 데 쓰이길 바란 적은 없었나요?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해 어떤 깨달음이나 찔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4. 우리 주변의 세상이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통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의의 길이 반드시 행복의 길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당신에게 위안이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양 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해당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원수 앞에 상을 차리시고**

1. 이 책의 3부 “손님과 주인”에는 주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특히 여기서 ‘주인(host)’이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2. 시편 23편 5절에서 주님을 향해 ‘그(He)’가 아닌 ‘주님(You, 당신)’이라고 직접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지금 당신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나요?

3. 이 장을 읽고 난 후, “상(식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전보다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나요?

4.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색한 분인가요, 아니면 너그럽고 위대하신 분인가요? 종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주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깊이 생각해 보세요.

5.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것에 대한 C. S. 루이스의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사무엘하 17장 27-29절의 말씀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6. 시편 23편의 말씀은 결핍과 주림이 지배하는 ‘광야의 속성(the wilderness grain)’을 어떻게 정면으로 거스르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나요?

7.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상에 앉아,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한 대접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 **끝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1. 성경의 언약적 맥락에서 쓰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는 두 명사의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2.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나요?

3.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선하심과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4. 시편 139편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주님이 당신의 앞뒤를 에워싸고 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당신의 용기를 북돋우며 평안한 안식을 선사하나요?

5. 6절에 나오는 “반드시(surely)”와 “평생에(all the days)”라는 표현에 비추어볼 때,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6. 주님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목자이심을 깊이 깨닫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

합시다.

### **영원히 거할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네**

1. 어떻게 시편 23편 4절이 성경 전체의 ‘심장’이며, 6절 후반절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정점(클라이맥스)’이 되는지 묵상해봅시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이 복음(Gospel)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2. 이 장을 모두 읽고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3. 시편 23편의 전체 말씀에 비추어볼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회복/소생(restore)’과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돌아감/거함(return)’이라는 두 단어는 우리 신앙에 왜 그토록 중요한지 나누어봅시다.
4.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주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 이 장을 읽으며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어루만진 격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6. 시편 23편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천국 본향으로의 여정(homegoing)은 어떤 의미인가요? 특히 조지 맥도널드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머무는 ‘현관(porch)’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나누어봅시다.

### **마치며**

1. 시편 23편을 가사로 삼아 만든 다양한 찬양과 노래(sung versions)들을 찾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봅시다.

2. 시편 23편의 구절들 중,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깊게 다가오거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3.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4. 이 책과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 “나그네와 동반자”, 그리고 “손님과 주인”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모든 여정을 마친 지금, 당신은 어느 부분에 가장 마음이 끌리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현재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